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주)신송식품 조갑주 회장

CONTENTS

- 2 나침반
안병훈 대학원장
- 3 특별기고
생산기술연구원 이진주 원장
- 4~6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
- 7 테크노 이모저모
- 8 테크노경영대학원 소개
- 9 CEO 인물탐구
(주)신송식품 조갑주 회장

- 10~11 교수 칼럼
이승규 교수
- 12~14 Management Tips
벤처 비즈니스 배종태 교수
전자상거래 이재규 교수
금융공학 김인준 교수
- 15 인터넷 Hot Business Site
- 16 동문기업 탐방
(주) LG상사 LG패션

- 17 테크노경영관 특집
- 18 국제교류코너
- 19 연구실 소개
- 20~21 테크노 가족
- 22 AIM 소식
- 23 알림란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1998 WINTER Vol.2 No.1
발행일 1998년 1월 1일
발행인 안병훈
편집인 김영걸
발행처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02) 958-3246
FAX 02) 958-3010
URL <http://kgsm.kaist.ac.kr>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63-7534



대한민국에는 대한투자신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투자기관인 대한투자신탁이
21세기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우수한 상품개발력

‘히트상품이 가장 많은 투자신탁!’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한 대한투자신탁의 상품개발력, 고객이 원하시는 모든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연속 아시아머니誌 올해의 금융상품 선정, 국내언론기관 최다 히트금융상품 선정 - 프리미엄, 한마음, 내고향, 하이파워)

정통의 운용역량

‘수익률 1% 라도 더 ...’

전문투자기관 20년, 과학적인 운용체계와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고객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고객관리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마음으로 ...’

회사 최고 목표인 고객만족! 금융자산관리전산시스템과 종합상담사가 고객의 금융자산에서 부동산까지 재테크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투자기관

대한투자신탁

무로상담전화 : 080-023-2340



테크노경영대학원은 21세기 나라에 대한 소명감을 가져야 ...



요즈음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낳고 세계 무역 11위의 경제대국이며, 부자 클럽인 OECD의 회원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나라의 경영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일면 정경유착이나, 문어발식 경영을 한 점을 탓하면서도, 험난한 국제 경쟁속에서 성장해온 우리의 대기업들을 내심 존경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아시아국가의 경제기적들은 거의 무(無)의 상태에서 저임의 노동력과 해외자본을 끌어들이, 특별한 비결 없이 커져버린 것이고, 결코 기적스러움이 없다고 평가절하 하여도 이에 내심 반

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세계화다, 정보화를 기치로 내걸고 달려온 문민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무언가 그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 이런 저런 정책 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선 기업들은 아직도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경제를 버텨주는 것으로 알았던 반도체는 엉뚱하게도 국내 대기업들간의 과다공급경쟁으로 국제시장가격을 폭락시켜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후발 대만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들은 거의 빛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그 빛도 양질의 빛이 아니다. 단기자금을 끌어들이 장기시설투자에 투입하니, 정상적인 경영환경이라면 이런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금융산업 여건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모든 것이 개방화되어 가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무대에서 이런 것들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도 이를 현실 모르는 상아탑의 외침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아직도 국제협상에서 우리 대표들은 국제감각 결여, 전문성 부족 및 정책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타국에 끌려 다니기 일쑤이다. 어떻게 OECD에 가입하였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최근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대통령선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나라와 기업의 모습을 개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기술과 경영을 접목하고, 21세기 전략분야들인 기술, 환경, 정보통신, 금융공학들에 선도연구와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우리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기본전략 방향은 바로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절실한 임무요, 사명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기본방향을 세계화와 정보화의 틀 속에서 나라전체에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룹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60~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정당화되었던 사고의 틀이나 기업경영 행태가, 첨예한 국제경쟁시대인 21세기에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의 우리 사회를 이끌던 패러다임은 이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 부끄러울 정도의 우리 나라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혁신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바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개발시키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개인의 시장가치를 올리고, 기업경영의 단세포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근시안적 경영교육과는 궤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수,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테크노경영대학원 식구들이 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안 병 훈

생산기술연구원
이진주 원장



21세기형 테크노경영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국가적 부도이니, 한일합방이후 최대의 국가적 수치이니 하는 자조(自嘲)속에 IMF 구제금융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 속에 실패의 씨앗이 숨어있음을 간과(看過)한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기에는 우리의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절망을 이겨내는 미래에의 준비가 더욱 값진 것이다.

일찍이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의 삶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이 10년 앞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인재(人材)를 키우는 것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절감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열려지는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에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교육시키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책임은 그래서 더욱 무겁고, 그러한 책임에 비례하여 미래의 희망은 더욱 크기만 하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은 대량생산체제에서의 경영패러다임을 간소 경영(Lean Production Management)방식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획기적인 내용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에 따른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준비의 필수조건이라면, 인간성이 풍부한 인격을 지니도록 하여 우리 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민주성, 유연성을 불어넣어 후진성에서 하루빨리 졸업하도록 하는 것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육의 충분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공간적으로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으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경영인과 경영학도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재학 중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평생을 통해 사후봉사(After Service)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은 그 내용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것이어야 할뿐 아니라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선도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방식의 하나가 원격학습시스템(Distance Learning System)의 도입이다. 인터넷, 인공위성 등의 첨단통신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가상공간에서의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이나 사이버대학(Cyber University)이 낯설은 개념이나 용어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범적 성공사례가 RPI, NTV와 같은 대학에서뿐 아니라 Motorola, Intel, Oracle 등 기업에서의 사내교육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업에서의 사내교육이 기업내 종업원에게 한정되지 않고 상업적으로 기업 밖의 고객에게도 제공되어 기존 교육기관인 대학과의 경쟁과 협조가 새로운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이 교육내용뿐 아니라 교육방식에서도 21세기를 선도하지 않는다면, 대학원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까지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한 선도적 역할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직원 여러분의 무한한 봉사에서 시작됨을 높이 평가하면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인터넷 상거래 시대의 경영 Workshop 개최

인터넷시대 비즈니스 전략 모색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지난 10월 1일(수),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인터넷 상거래시대의 경영"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여준 행사였다.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과 기술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정보사회의 중심적 사회기반으로 등장할 '인터넷 상거래 시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그에 따른 경영교육의 미래 좌표설정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안병훈(安炳勳) 대학원장의 '인터넷 상거래와 경영교육의 좌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인 경상현(景商鉉)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전전망' ▶지난 1월 제30차 하와이 시스템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 최우수 논문

상을 수상했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재규(李在奎) 교수의 '인터넷 마케팅과 유통구조의 혁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인준(金仁俊) 교수의 '전자금융과 금융산업의 변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배종태(裴鍾太) 교수의 '벤처기업과 인터넷 상거래' 등 다섯 차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이 인터넷을 통해 대금결제와 배달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자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인터넷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신문사에서는 네티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터넷 이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제조업체, 금융기관, 유통업체, 정보통신사업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대를 함께 전망해보고 우리 나라 경영교육의 미래 좌표설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터넷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지불체계는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보안체계의 표준화, 국제적 과세원칙의 합의,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사이버 신용평가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

MBA 각 과정별 활성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1997년 가을 학기에는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한 초청 세미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금융공학전공의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는 10월 9일(목) 오후 3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금융공학에 대한 최근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석좌교수이자 Journal of Finance 편집위원장인 Rene M. Stulz박사였다. 기술경영전공은 11월 11일(화) 오후 3:30시 "Tools for Innovation Management"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는 R&D Management Journal의 실질적인 편집운영을 맡고 있으며, 유럽의 R&D Management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Jeff

Butler 박사였다. 또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5회에 걸쳐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인 Abetti교수



(Lally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RPI))를 초청하여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Abetti 교수는 GE에서 30년을 근무하는 등 산업체 경험이 풍부하

여 실제적인 많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19일은 "사내기업가 정신"과 "기술전략과 경영전략의 연계", 20일은 "벤처기업경영", 21일은 "과제평가 및 신상품 위험관리", 26일은 "산업재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의 경제학부장 및 전산학과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차원의 정보과학회인 EUROMICRO의 국제저널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Lutz Richter 교수가 10월 20일부터 7일간 KAIST를 방문했다. 10월 21일(화) 오후 2시, 서울 홍릉캠퍼스를 방문한 Richter 교수는 "스위스 은행 사례를 통한 전자 상거래 시장을 위한 분석 처리 환경"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한국경영정보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회계·재무정보시스템 연구실
한인구 교수, 박사과정 허재호군

지난 12월 11일-12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관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 주관으로 열렸던 "SI 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한 '97 국제 conference"에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회계·재무정보시스템 연구실의 한인구 교수와 박사과정 허재호 군이 공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 정보시스템의 성숙도가 정보시스템 평가척도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라는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연이어 세번째로 한국경영정보학회의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회는 이희석 교수, 2회는 이재규 교수, 그리고 이번 한인구 교수가 3회째이다.

최고벤처경영자과정 개발을 위한 workshop 개최

'98년 테크노경영대학원에 개설 예정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1998년 봄부터 개설예정인 최고벤처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11월 25일, 서울 홍릉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영자들과 대기업 벤처경영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외국의 벤처경영 교육의 현황을 소개하고,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벤처기업 성장관리를 위한 경영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안병훈 대학원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되었으며, ▲생산기술연구원

의 이진주 원장은 "벤처경영자 교육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피에스아이에이(PSIA)(주)의 박상일 사장은 "미국에서의 벤처경영교육 현황"에 대하여, ▲경북대 이장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경영 모형"에 대하여, ▲미국 RPI 경영대학원의 석좌교수인 Pier A. Abetti교수는 "미국의 벤처경영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파생상품거래 지원시스템 개발

허순영 교수팀, 시너지 컨설팅 그룹과 공동으로 KT마크 획득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허순영 교수 연구실(데이터베이스 응용연구실)에서 시너지 컨설팅 그룹과 공동으로 금융파생상품 딜링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KT(국산 신기술 인정)마크를 획득하였다.

객체지향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및 가격 모델을 구현한 이번 연구는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산 신기술 인정을 받은 것이며, 산기협과 과기처 주관으로 11월 20일,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대강당에서 국산 신기술 인정식 기념행사와 수상식이 있었다.

문송천 교수, 유럽정보과학회 이사로 선임

정보통신학회의 “유럽통”으로 불리우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문송천 교수가 1997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거행된 제23차 유럽정보과학회(EUROMICRO) 국제 학술회의에서 4회째 연속 이사로 선임되었다.

방문 소식

• Grasso 박사 (CMU의 하계 연수 책임자) 방문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의 하계연수책임을 맡고 있는 Dr. John T. Grasso가 10월 28일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방문, 국제회의실에서 CMU의 하계연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RPI 학장내외 방문

미국 RPI(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Lally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학장내외와 MBA, 국제 협력 담당자 등 4명이 11월 14일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방문하여 앞으로의 상호 국제협력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 기술경영 MBA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RPI소개 및 하계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호주 RMIT 교환학생 13명 방문

학사과정인 산업경영학과(대전)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호주 RMIT학생

13명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서울 홍릉 캠퍼스를 방문하여 석·박사과정의 경영공학 전공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비원, 민속촌 등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경영학과 소식

산업경영학과가 '97년 대동체육대회에서 물리과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1997/10/16), 올해부터 출범한 KAIST 야구리그에서도 3개월 간의 정규리그와 챔피언시리즈를 모두 휩쓸어 우승을 차지하였다.

동아리 소식

• 영화동아리 Scinema 탄생

테크노경영대학원 영화동아리 Scinema(싸이네마)가 탄생했다. Scinema는 Science 와 Cinema를 절묘하게 결합한 단어.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적인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태극권동아리 무극 탄생

태극권 동아리 '무극'은 태극권을 수련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며, 태극권을 통해 회원상호간의 친

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선릉의 '조영준' 사범 밑에서 같이 수련할 회원들을 모집 중이며, 매년 1회 정도의 태극권 단체 시연을 구상하고 있다.

ITSP 소식

SK-Telecom 통신복합학문과정 관리급 제6기 입학에 맞아 10월 6일, 교수진의 소개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기타 수상 소식

• 석사과정 김선아, 박하일씨가 공동으로 “Complex System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제4회 SK 열린논문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 박사과정의 이종석씨가 “금융개혁에 따른 지방은행의 생존전략”이라는 논문으로 매일신문사와 대구은행이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박사과정 김희웅씨가 국제정보시스템 학술회의(ICIS)에서 주관하는 Doctoral Consortium(12월 13일 - 15일, Atlanta, U.S.A)에 한국대학 대표로 처음 초빙되었다.

미래를 창조하는 지성의 보금자리

경영공학전공

송 인 경 기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이라는 비전으로 1996년 3월에 출범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위과정은 크게 경영공학전공, MBA 과정, 산업경영학과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호의 테크노경영대학원 소개에서는 그 첫 순서로 경영공학전공을 다루기로 한다. 먼저 경영공학전공의 인적구성 및 학생특성, 교육 및 연구분야, 그리고 KAIST의 오랜 전통인 Lab제도 등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영공학전공은 경영분야에서의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약 30여명의 교수진이 여러 가지 방법론과 심도있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석사과정 105명, 박사과정 235명 등 총 3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응용연구능력을 교육하고 있다. 경영공학 석사과정은 매년 4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후에는 주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며, 박사과정은 매년

3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후 주로 학계나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다.

경영공학의 집중 연구분야는 경영학의 제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경영관리분야, 경영정보시스템 및 통신경영에 필요한 컴퓨터기술과 경영분석기술을 연구하는 경영정보 및 통신경영분야,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관리와 기업가정신 그리고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환경경영 및 ISO 14000을 포함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및 환경경쟁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경영 및 환경경영분야, 민간경제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산업경제 및 정책분야,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하에서 바람직한 국가정책 및 기업전략과 통상협상에 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지식을 함양하는 국제경영 및

통상 분야 등 크게 5가지 집
중 연구분
야를 중

심으로 '96년 3월 설립이후 1년간 교수진들이 해외논문 63편을 포함 총 133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영공학전공이 가진 가장 뛰어난 장점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함께 초창기 멤버들이 가지는 열정,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초청 세미나 등 수많은 교육 보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KAIST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Lab제도라고 할 수 있다. Lab제도는 학문적으로는 연구하는 학풍과 세계를 보는 시야, 인간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쉽과 팀을 생각하는 여유로움 그리고 따뜻한 감성을 키워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Lab제도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가는데 Lab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영공학 전체의 결속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Lab제도에서부터 우리나라 단단한 정신공동체적 기반은 내·외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있으며, 경영공학 가족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기술을 이해하고 범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경영 및 정책지도자들의 요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F**



〈약력〉

1963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9년 : (주)신송식품 설립 대표이사 취임

1991년 : 재단법인 신송 장학재단 설립

1997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제23기 수료

1997년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제6기 수료

현 재 : (주)신송식품 대표이사 회장, 재단법인 신송장학재단 이사장

(주)신송식품

조갑주 회장

김선아, 김창연 기자

'Frontier'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을 찾아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제 6기 회장을 지냈으며 올해 ISO 9001의 획득과 품질경영대상 수상 등을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된 (주)신송식품 조갑주 회장을 만나 보았다.

기자: AIM 과정을 수료하신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회장: AIM 과정을 통해 기술을 아는 경영인의 양성을 시도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이와같은 노력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최고경영자과정에도 참가해 보았지만, AIM의 경우 이론의 응용 및 활용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노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나이를 초월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이었지만, 특히 실습에 대한 열의는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어요. 심지어 실습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AIM만의 차별화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화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홍보 과장: (농담섞인 어투로) 회장님께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후에 직원들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자: 회장님의 정보화 추진에 열의가 대단하신가 보군요.

기자: 21세기에 요구되는 경영인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 정보화 마인드는 기본이겠지요. 이와 더불어 끊임없는 창조적인 생각과 전 직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인은 기업을 영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연구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요구되지요. R&D 투자에 과감하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빠른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변화하는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지겠지요.

기자: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식품산업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장: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의식주 각 부문에서의 균형된 산업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통신과 같은 특정 산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식품산업, 특히 전통식품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인재

들이 전통식품 산업에 많이 도전해야만 우리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해도 지원없이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많은 지원 노력을 요구하고 싶고, 학교에서도 대기업을 위한 정보화 연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기자: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 우선 인재를 운운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편하게만 살려는 요즘 젊은이들이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지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단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적 시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적응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좀 더 먼 곳을 내다보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자: 회의실 벽에 걸려있는 '우리들이 하는 일로,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F**



경쟁역량의 새로운 차원: 녹색경쟁력

이 승 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새로운 착상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념과 관습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몫이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은 그 때까지의 자동차에 대한 용도-호사가들의 사치스런 장난감-와 생산체계-숙련된 장인에 의한 수공업 생산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량생산체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사조의 출발점이 된다. 돌이켜 보면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경제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는 수직적 통합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이지만, 처음에는 정신나간 짓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량생산으로 안정된 품질의 값싼 소비재가 일반대중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대량소비를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신대륙에서 시작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전세계로 확산되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간반방식으로 유명한 일본의 토요타 생산방식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5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규모의 경제에 대한 맹신을 거부하는데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포드사가 향유하는 설비투자의 규모의 경제를 모방할 만한 규모가 되지 못했다. 오노 다이이치는 차체의 강판을 가공하는 프레스기가 한 가지 모델만을 위해 이용하기에는(전문화) 너무 비싸다면, 준비교체시간을 줄여 이용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역시 처음에는 금기에의 도

전이었으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있어 전세계가 따라배우는 새로운 금과옥조가 되었다. 이로부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고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 통신, 물류 등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주요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취약한 상태라고

걱정들을 한다.

터 생산에 있어서의 유연성(Flexibility)과 시간경쟁(Time-Based Competition)이라는 새로운 발상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새로운 경쟁우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경쟁역량이란 단 두 가지 원천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받아

들여 실천하되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열심히,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도록 혼자서만 실천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초우량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다. 경영전략에 관한 이론이 단 하나라도 실무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남들이 다 아는 아이디어를 남들과 비슷하게 대충 따라해서는 절대로 경쟁우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논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입시철이 되면 언론의 조명을 받는 수석합격생들은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였으며,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틀린 문제는 철저히 복습하여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뭔가 특수한 비법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위로한다. 사실 그 젊은이가 말하려 하는 것은 교과서나 참고서, 과외 따위가 아니라 “철저한” 실천과 그 과정에서 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보람에 관한 것이 아닐까?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고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 통신, 물류 등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주요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취약한 상태라고 걱정들을 한다. 경쟁력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철저한 실천에서만 오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쇠약해졌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개별기업 수준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 각 산업에서 잘 알려진 제품을, 잘 알려진 기술을 얻거나 모방하여 생산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리자와 노동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여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경쟁력을 얻은 대부분의 산업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변화하는 경쟁논리가 충분히 반영된 산업에서의 성공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80년대 이후 경쟁의 논리가, 변형된 대량생산 논리, 즉 시간경쟁과 유연성 경쟁으로 전환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와 개혁의 아픔을 이겨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개별기업의 끝없는 사업영역 확장과 황금알 낳는 거위 찾기 놀음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어떤 산업이 참여하기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로 시장경제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황금알을 기대할 수 많은 기업들이 너나 없이 달려든 금융시장이나 통신시장, 유통업시장에서 황금구경을 한 경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 현대적 조직과 경영을 익혀 세계무대에 나섰다. 이 능력으로는 변형된 대량생산논리인 시간경쟁, 유연성경쟁의 시대에도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국제경제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적인 상식이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정보와 지식의 창출과 활용,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재편이다. 이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며, 고객만족과 개성추구, 편리성등도 그 자체로 추구할 궁극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이 거꾸로 후손에게 빌려쓰는 것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Sustainable Economic System)로의 전환이 새로운 세계의 방향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며,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한 시대의 정신이 그 임무를 다하고 물러나면 새로운 시대정신은 과거의 그것을 포용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대량생산시대에도 수공업시대의 제품품질은 고려되었으며, Post-Fordism도 원가경쟁력을 무시하지 않는다. 새로운 Eco-Efficiency와 Sustainability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QCDF(Quality-Cost-Delivery-Flexibility)의 게임논리에 녹색경쟁력(환

경친화성 또는 Greenness)을 더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은 대량생산의 개화에도, Post-Fordism의 개화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추종자로서 바빴다. 21세기의 새로운 녹색경쟁의 시대에 어떤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지는 아직 선진기업들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난국과 기업들의 개혁의지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최근 토요타는 연비를 30% 이상 개선한 새로운 자동차를 시판하였으며, BMW는 폐자동차의 해체와 재활용을 위한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F**



벤처기업이 잘 자라는 토양 실리콘밸리의 교훈

배 중 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원수와 야생화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제반 사업/제품들의 뿌리가 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의 특성은 기술창업팀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고 유연하게 기회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부서간의 벽이 매우 낮고 자율적인 문화를 가진 벤처기업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민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일반기업이 주어진 틀에 맞추어 가치를 쳐서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정원수(庭園樹)라면, 벤처기업은 마치 들에 핀 야생화(野生花)와도 같다. 그러나 야생화가 모진 바람을 이겨 내려면 뿌리가 강하게 내릴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벤처기업도 잘 생성/발전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벤처기업의 메카로 널리 알려진 실리콘밸리의 토양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신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

실리콘밸리의 교훈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사이의 폭 25마일(약 100리), 길이 45마일(약 180리) 규모의 평탄한 지역이며, 여기에 200만명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의 특성은 주변에 스탠포드대학, 산타클라라 대학, 산호세 주립대학 등 대학이 많아 지식인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기후가 좋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즉 우수한 인력들이 몰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스탠포드대학의 터먼 교수 등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구심체가 생기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지역이 되었다. 무엇이 이러한 다이나믹스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답은 실리콘밸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미국 Diamond Multimedia Systems社의 이종문 회장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원인을 ① 창업에서 주식시장(IPO)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자금공급센터, ② 벤처기업들에게 지식을 공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기초연구센터, ③ 벤처기업들에게 물리적인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시설지원센터, ④ 엔지니어 출신이 많은 벤처기업 사장들에게 법률, 상장, 회계 등 다양한 전문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지원센터(Professional Supporting Sector), ⑤ 창업자들에게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자금조달, 전략경영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노련한 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전략지원센터, 그리고 ⑥ 벤처기업의 인력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훈련센터 등 6가지 인프라에서 찾고 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약 6,000개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연간 2조불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인프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즉 오가웨어(Orgaware)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위에 창의적이고 유능한 벤처기업가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회를 파

악하고, 이를 즐기면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이다. 아마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교훈을 일부 배울 수는 있어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좋은 기후 등 쾌적한 지역조건과 반도체기술 발전시기와의 기막힌 맞물림, 그리고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정보흐름 입력, 그리고 우수한 대학과 인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한국형 벤처기업 토양을 만드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지식과 자본의 결합인 벤처기업

40년전 쇼클레이반도체연구소를 뛰쳐나간 8인의 배신자(Traitorous Eight) 이후 실리콘밸리에는 우수인력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고, 창업기의 벤처기업도 잠재력만 있으면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에 의해 우수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혁신적인 벤처기업가들은 그들의 능력과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주식시장과 실물시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즉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창업자와 구성원들의 우수한 두뇌, 즉 브레인파워에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Angel)들과 벤처캐피탈회사의 자본이 합쳐져 벤처기업은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본의 흐름은 증권시장의 발달로 인해 투자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즈니스위크誌도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브레인파워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와 위험을 감수



인터넷과 고용 및 교육

이 재 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한 벤처자본시스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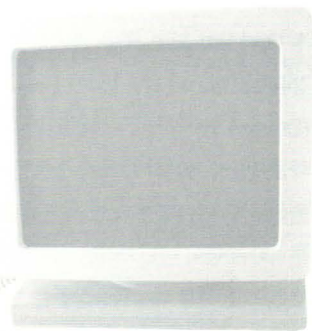
우리가 가꾸어야 할 토양

벤처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땅과 수분과 햇볕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즉 자본, 전문인력, 경영지원 등 제반 자원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은 인프라 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핵심은 역시 창업자와 우수인력(Brain Power),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에 있다. 우리의 첨단산업 창업기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제반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적재적소애의 올바른 과학기술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며, 국민의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병렬식으로 동시에 힘겹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는 원료를 넣고 바로 기계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경직된 개념보다는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기다려 수확하는 농부의 느긋함과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다. **F**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고객으로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유통산업과 금융산업의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 면에서는 저비용 체계가 바람직하지만 근로자 감축이란 고통이 수반된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를 냉혈한과 같이 파괴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때문에 내가 해직되었고, 인터넷만 아니었다면 행복했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도 남을 일이다. 다행히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해직되는 단계는 아닌 이 때에 이런 근로자나 기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 산업혁명과 컴퓨터의 출현이후에 발생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강대국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고용이 안정된 나라가 아닌 가난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기계나 컴퓨터는 실업자를 초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기계나 컴퓨터의 전문가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1996년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의 50%가 인터넷과 관련된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에 기인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의 번영과 생산성이 인터넷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성 싶다. 우리 나

라도 아픔을 딛고 새로운 기회 창출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위협받을 위치에 선 기업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교육으로 전화위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번영이 우리의 공통만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F**





파생금융상품과 금융공학의 발전

김 인 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파생금융상품은 조건부 증권(Contingent Claims)이라고도 불리우며,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기초가 되는 증권에서 파생된 증권으로써 그 현금흐름이 기초 증권의 가격에 따라 변하는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이다. 옵션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으로써 미래 주가가격의 변화에 대한 확률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OSPI200이 한달 후 60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내기를 한다고 해보자. 만약 KOSPI200이 한달 후 60이상이 되면 60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으나(75가 되면 15원을 받음), 60미만이 되면 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확률게임이 옵션의 두가지 종류 중 하나인 콜옵션이다. 이렇게 보면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사실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위험관리 및 효율적 자금 조달 등이 본래의 경제적 기능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파생금융상품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으며 과거 20여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전은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솔스와 머튼 그리고 2년전 작

고하여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가 되지 못한 블랙의 옵션가격결정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솔스는 블랙과 공저로 1973년 발표한 옵션가격 평가에 관한 논문에서 이제는 널리 알려진 블랙-숄스 옵션평가식을 도출하였다. 머튼은 이들과는 독립적으로 옵션가격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블랙-숄스 옵션평가식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이론을 제시하였다. 경제학과 재무학에서 블랙과 솔스의 이론만큼 자주 인용되며 인구에 회자되는 이론은 없는 것 같다. 사회과학 이론은 새로운 사회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나면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제시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블랙과 솔스 그리고 머튼으로 이어지는 옵션가격 평가이론은 새로운 경제 현상인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선도하였으며, 금융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들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한 블랙과 솔스의 논문이 처음에는 학술지의 게재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이론이 그만큼 앞서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옵션가치 평가이론은 블랙, 솔스 및 머튼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00년 수학자 베렐리에겐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옵션을 가상적으로 정의하여 가

치평가를 시도하였으며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무엘슨도 옵션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베렐리에나 사무엘슨이 제시한 모형은 외견상 블랙-숄스의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블랙-숄스 이전의 모형들은 옵션가치평가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인 차익거래의 부재를 고려하지 못했기에 균형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블랙-솔스의 모형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옵션의 가치평가를 위한 최초의 균형 모형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국내에도 지난 7월부터 주가지수옵션이 도입되어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파생상품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F**

박 승 룡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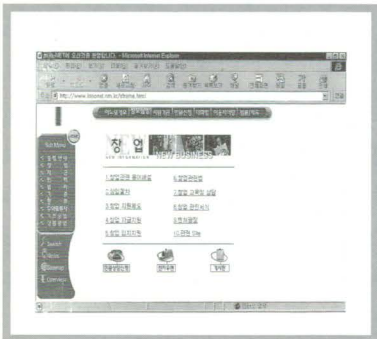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꿈. 21세기의 휴렛 팩커드, 빌 게이츠, 손정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술창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경제상황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쯤은 창업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신기술을 도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곳, 이것이 벤처기업의 매력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도 예외일 수 없다. 한번이라도 벤처기업을 꿈꾸어 본적이 있다면, 다음 사이트들을 찾아가 보자.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를 만나게 될지도.....

창업에 관한 종합정보 - 종합기업 서비스 전산망

(<http://www.innonet.nm.kr/sframe.html>)

벤처기업 창업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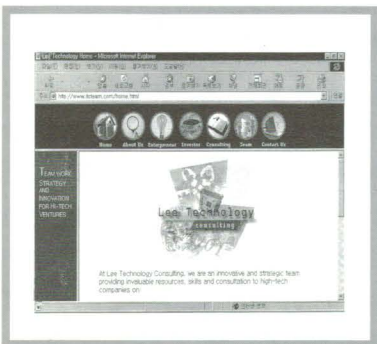


종합기업 서비스 전산망은 기업이 정부 및 각종 지원기관이 보유한 필요정보(정책, 규정, 방침, 각종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인력·기술·입지·판로·무역 및 투자 등의 경영 전반에 관한 관련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정부·관련기관·연구소·대학·협회 등 범부처들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보유정보의 상호교환 및 업무협력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창업란을 클릭해보면 창업관련 용어해설, 창업절차, 창업지원제도, 창업자금지원, 창업입지지원, 창업관련법, 창업교육 및 상담, 창업관련서류, 벤처광장 등을 볼 수 있다.

한국계 미국 벤처 컨설팅 회사 LTC

(<http://www.ltc-team.com/>)



벤처기업 컨설팅 분야

미국 실리콘 밸리 지역의 한국계 벤처투자 컨설팅 업체인 리 테크놀로지 컨설팅 회사의 웹사이트이다. LTC(LEE Technology Consulting)사는 세계 유수의 전자 및 정보통신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창업투자, 기술제휴 등 각종 벤처기업 관련 컨설팅에 주력해 왔다. 작년 한해동안 한국 및 동남아 업체들의 사업자문을 통해 1억달러 이상의 계약 건수를 올린 하이테크 전문 컨설팅 회사이다. LTC 대표 이인근 사장은 웹사이트의 개설로 인해 실리콘 밸리와 한국 벤처기업들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은 물론 매일 입수되는 이 지역의 신규 사업이나 투자 기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서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사업제안을 해볼 수 있다.

패션의 중심지, LG패션을 찾아서

김선아 · 이승철 기자

20세기가 정치와 경제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와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21세기 새 패러다임의 양대 맥을 형성할 문화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현재의 문화를 반영하는 패션 산업의 의미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사장이 직접 출연한 광고가 꽤 인상적이었던 “21세기 패션으로 기억되는 나라, 패션코리아”를 주창하고 있는 LG패션을 탐방해보고자 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압구정으로 본사를 옮겼다는 LG패션은 입구에서부터 패션기업의 문화가 다른 기업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주었다. 특이한 모양의 자동문, 패션회사임을 상징하는 듯한 1층 로비의 가위 형태의 조형물과 카페를 연상시키는 waiting room이 남다른 감각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빨간 와이셔츠로 멋을 낸 사원과 노란 브릿지를 한 사원의 모습에서 패션기업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LG 패션은 패션산업이 문화산업의 주요 요소임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문화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매달 고객을 대상으로 JAZZ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고, 시인들을 초청하여 문학강연과 시낭송회를



(주)LG상사 LG패션 신 흥 순 사장

열고 있으며, 신세대 화가 작품을 매장에 전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재육성을 위해 ‘프랑스 국제 신인디자이너 콘테스트’를 비롯하여 많은 디자인, 패션행사들을 후원, 주최하고 있다. LG패션은 패션산업이 고도의 생활문화사업임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채로운 문화 공간과 이벤트를 마련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패션의 문화적 성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통해 패션산업이 문화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화를 선도해 나가려는, 문화적 측면에서 패션 산업의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패션산업은 유행의 특성상 국내의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획-디자인-생산-판매의 전공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므로, 고도의 정보화를 통해 타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LG 패션에서는 일찍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측면에서 업계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홍순 사장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AIM(최고정보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에 대한 마인드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화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LG패션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사간 전자메일을 설치하여 패션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였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기획조달 시스템과 물류영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전산화를 심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LG 패션 기업탐방을 통해, 패션산업은 단순히 옷만 만들어 내는 의류산업이 아닌,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21세기의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요즘 회자되는 Glocalization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이점을 지닌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보화·문화행사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21세기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LG패션의 Fashion Korea 실현 의지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디자인이 지배하는 21세기 문화의 선도자로서 패션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F**

Digital Library

최재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학실

Digital Library(이하 DL)는 모든 자료를 Digital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Library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용어로서 원래는 Electronic Library가 주된 개념이었는데 1995년부터 DL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당시만 해도 국내의 전문가 일부에서만 통용되는 학술적 전문용어가 현재는 일반명사화 되었다. 현재 각 외국의 대학 및 국내 대학에서 DL이라는 개념으로 Service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WEB System

Web Browser인 Netscape 또는 MS Internet Explorer를 이용자 Client Program으로 사용하는 System으로 WEB상에서 검색결과에 대해 열람 및 프린트하는 시스템이다.

사용대학: 미시건 대학, 카네기멜론 대학, 충남대학

2. 자연어 질의 시스템

OCR(Image를 Text로 변환하는 기술) 기술을 통하여 Full Text DB를 구축하고, 이와 연결된 Image Database도 같이 구축하여 검색시스템을 제공한다. 문서내용의 자동색인이 주된 편리성이다. 한글자동색인 및 자연어 색인 기술사용

사용대학: 카네기멜론 대학

-HELIOS System

3. CD-Network System

CD-ROM Jukebox와 CD Network 기술을 이용하여 CD-ROM에 수록된 Database를 공유하고 검색 Service를 제공하는 기술로써, Network를 통하여 CD-ROM에 있는 Database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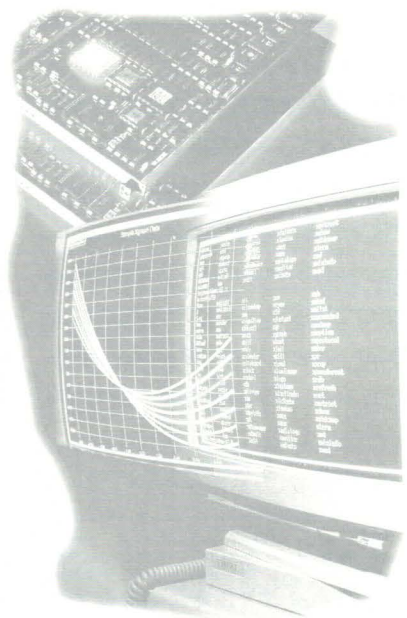
사용대학: 다수

4. Image Filing System

원문을 Scanner로 Scan하여 Image를 검색할 수 있는 Software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별도의 Index를 만들어 검색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98년도 여름학기부터 이용가능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Digital Library의 Service 계획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될 Network환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Main망의 경우, 대전과 OC-3 155Mbps ATM망으로 연결될 계획이며, 각 연구실별 Server급 Workstation 및 HOST에는 100Mbps, 개인 이용자별 Network지원속도는 Dedicate 10Mbps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적으로 Dedicate 10Mbps는 이용자들에게 MPEGII정도의 Video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Network속도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환경이 구축된 후 제공할 테크노경영대학원 Digital Library의 Service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자료는 현재 Service하고 있는 형태를 Web 검색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Service한다. 키워드 검색 및 간략내용 검색 제공.
모든 자료를 Digitalize한다는 것은 저작권 등 문제발생의 여지와 막대한 인력적 투자의 비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 Business 관련 CD-ROM 및 CD-ROM으로 제공되는 잡지 등에 대해 CD-Network으로 Service한다.
3. Harvard Business School 강의 Video Tape, IEEE 강의 Video Tape등의 Video자료들을 입수하여 가공, Video On Demand system으로 Service한다.



4. 강의예약자료를 Image로 Scan하여 원문 서비스를 Web으로 제공한다. 이상 위의 4가지 System으로 Easy User Interface Library System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

또한 Service의 형태는 모두 Web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Digital Library란 모든 정보를 Digitalize하여 제공할 수 있는 Solution을 가지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DL은 기존의 자료와 앞으로 입수할 또는 입수될 Digitalize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정확히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위에서 언급한 Easy User Interface Library System Service를 제공할 것이다. **F**

세계의 경영대학원을 찾아서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영대학

한 인 구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일리노이대학 경영학과는 독립된 학과로 존재하는 회계학과 재무학을 제외한 여타 경영학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경영학과 의 박사과정에는 Decision Analysis,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Business Marketing, Organizational Behavior, Operations Management, Strategic Mngement & Policy 등의 7개의 전공분야가 있다.

일리노이대학은 우수한 경영학분야의 학사과정을 유지하고 연구중심의 박사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전통적으로 MBA과정이 약했다. 다수의 명문대학이 경영학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나 1996년도 US News & Report에서 일리노이대학의 경영학 학사과정은 전국 5위로 평가되었다. 박사과정은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Top 10-15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회계학분야의 학사 및 석사과정은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은 Top 5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는 일리노이 대학뿐만 아니라 시카고 명문인 Northwestern대학과 Chicago대학이 인접해 있어서 우수한 MBA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리노이대학이 학부와 박사과정에 치중하고 Executive Program 및 MBA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전략을 전공하는 Thomas Howard교수가 학장이 된 이후 MBA과정이 경영대학의 간판이라고 강조하고 MBA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995년에는

MBA 프로그램을 크게 혁신하였다. Howard학장의 목표는 MBA과정을 조만간에 Top 20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먼저 MBA과정의 규모를 1년에 120명 정도에서 300명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공간적으로 건물의 한층을 MBA전용으로 하여 과사무실 및 직원을 확충하였고 MBA placement office를 분리, 발전시켰고, 학생회 공간, 세미나룸 등을 확충하였다. 대학에서 MBA Today라는 저널을 창간하였는데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잘 꾸며지고 있다. MBA학생회에서는 Sixth Street Journal(경영대학의 주소를 딴 것임)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leadership과 communication skill을 키우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복도에는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배려 및 국제화의 의미로 태극기를 포함하여 여러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어서 국제회의장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다.

MBA과정의 혁신은 통합과 team-teaching에서 시작하였다. MBA 1년차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의 저학년처럼 4개의 반으로 나뉘어져서 강의를 받는다. 첫 7주는 Foundation of Business라는 과목하에서 경영학의 기초를 주중에 매일 4시간 씩 강의를 받는다. 여러 전공분야의 교수들이 team으로 통합된 강의를 진행하고 컴퓨터교육과 professional communication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 과목에서는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경영전략의 수립 및 실행, 경영성과의 측정,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소비자선택 등을 배우고 발표력과 컴퓨터기술을 익히게 된다. 교재는 전통적인 교과서보다는 다양한 경영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례분석이 중심이 되고 2-3명의 교수가 동시에 강의실에서 토론위주의 강의를 이끌어 나간다. 학생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사례분석을 하고 8주가 되면 그동안 배운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Applying Business Perspective라는 세미나에서 그룹간 사례 경연대회를 한다. 우수기업의 경영자를 초청하여 사례발표를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일리노이대학에서도 Techno MBA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대학의 공과대학은 미국내에서 3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영대학보다 훨씬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RTMO(Research and Technology Management Office)는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장화하는 곳인데 Techno MBA학생들이 이러한 시장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문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일리노이대학이 발행하는 MBA Today에서도 Illinois MBA를 America's Most Technologically Enhanced Program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MBA프로그램의 변화는 학생과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강의는 담당교수들의 강의부담을 과증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학장이 MBA의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강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F**

이러한 MBA프로그램의 변화는 학생과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강의는 담당교수들의 강의부담을 과증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학장이 MBA의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강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F**

문송천 교수의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최 학 열 기자



특히 이 연구실은 문송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축구행사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인기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한번이라도 이겨 보겠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진 많은 타 연구실의 학형들의 참여로 매번 멋진 게임이 벌어진다. 더구나 비나 눈이 오면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상황으로 더욱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직접 몸을 부딪치면서 축구 경기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물론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에서 최고의 체력을 보유하는 연구실이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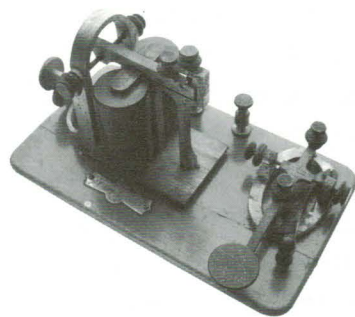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분야는 크게 데이터 모델링 관련 분야와 시스템 분야, 응용 분야로 구분된다. 문송천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중에서도 특히 거래 관리기에 기반을 둔 연구와 그 외 DBMS 전반에 걸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응용보다는 정보기술의 핵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인 IM을 1990년에 개발했고, 1992년에는 분산 환경에 사용되는 광역 데이터베이스 엔진 시제품 DIME를 개발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성공한 것으로써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만방에 알렸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재 연구실에는 30여 명의 박사과정과 7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학생들의 주 연구분야는 최근 네트워크의 확산과 사용자의 다양성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선통신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mobile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축구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시간동안 연구실에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연구원들의 드높은 학구열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첨단 연구에 투여되고 있다.

F



잊지 못할 수많은 얼굴들

오 성 지 기술경영전공 사무실

오늘따라 때늦은 단풍잎이 붉게 내 시야 속으로 들어온다. 공사관계로 조금은 어수선한 캠퍼스를 걸어오면서 문득 대전캠퍼스를 여유 있게 걷던 어느 날 아침이 떠오른다. 1995년 봄.

78명의 학생, 그리고 교수님들과 직원3명으로 시작한 기술경영전공 프로그램, 그것이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시작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게다. 처음 학생들과의 만남이 생각난다.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아니! 학생 맞아! 대체 누가 교수님이고 누가 학생인지 착각에 빠질 정도. 순간 당황스러움과 방정맞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하지만 모두들 출발점에 선 그 설렘과 긴장감에 많이 상기된 얼굴들이었다. (잠깐! 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기술지원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둔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영어회화에 참석하느라 졸음을 참으며 허겁지겁 달려오던 학생의 얼굴, Paper에 시달린 초췌한 얼굴, 시험에 쫓겨서 신경이 날카로와 일그러진 얼굴, 그런가 하면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서 주목을 받아 우상이 되어버린 반짝 스타의 얼굴, 툼툼이 시간이 나는 대로 수영이나 헬스로 정신건강을 외치던 얼굴, 얼굴이 빨개져야만 어디부터가 머리인지 구별이 갔던 얼굴, 한때는 다이어트 바람이 불어 너나할 것 없이 밥을 굶으면서 애처롭게 체중조절을 하던 얼굴들...

그랬다. 강의를 할 때나 세미나를 할 때는 그 준비성과 뜨거운 열기로 인해 서로에게 놀랐고,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때는 감

추어진 저마다의 실력에 놀랐고, 또 같은 동료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버리는 그 마음에 놀라면서.....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교수님과 직원, 그리고 학생의 구분 없이 그렇게 다들 잘해보자라고 서로를 독려하며 열심히들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마음 한구석을 훈훈하게 채워 주나 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새로운 전환점은 1996년. 기술경영전공을 바탕으로 다른 몇 개의 전공이 본격적으로 서울캠퍼스에 개설됨과 동시에 나는 서울로의 출장이 시작되었다. 나의 첫 과제는 학생들을 위한 전산실을 마련하는 일. 대전에서 컴퓨터를 신고 온날. 그러나 그때는 참 서러운 출장이었다. 낯선 캠퍼스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썰렁한 전산실을 지키면서 혼자서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 뒤로 몇 달동안 한 주의 반은 대전에서 나머지 반은 서울로 올라오는 힘겨운 출장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교수님들이 그러했고 직원들도 누구하나 여유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그때의 상황이었고, 나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을 정도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경영공학전공과 MBA과정이 합쳐져 테크노경영대학원이라는 큰 조직이 되었고 모두들 하나, 둘씩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제2의 도약을 위해 힘껏 달리고 있다.

초창기의 그 혼란스러움은 점차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 속에서 기술지

원실 역시 테크노경영대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덩그러니 썰렁한 방을 지켜가며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중압감에 시달려 살빠지는 소리가 쪽쪽 들리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듬직하게 기술지원실을 채우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사실 아직은 만족할만한 지원을 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신경이 쓰이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숨길 수는 없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기에는 학생들도 화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항의의 목소리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그러면서 빼먹지 않고 기술지원실에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을 욕심껏 해본다.

난 가끔 이렇게 웃는다.

"푸하하하하..."

어찌 보면 방정맞고 우스꽝스러운 웃음이지만, 힘들거나 지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웃어버리는게 이제까지 날 버티게 한 힘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푸하하하하하... **F**



KAIST에 대한 기대

정 영 조 산업경영학과 4년

이제 나의 대학교 시절도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는 듯, 나는 가끔 나의 지난 대학생활을 돌이켜 보게 된다. KAIST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내가 중학교 때였다. 형의 과학고 진학 당시, 그 진로가 대부분 과기대로 정해져 있었기에 KAIST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동시에 형은 과기대로 진학을 하였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터라 당연히 대학이란 곳에 대하여 형에게 학교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면서 나의 KAIST에 대한 꿈을 본격적으로 키워 나갔다.

그로부터 삼년 후, 그렇게 일찍 꿈을 가진 탓일까? 나는 비교적 순조롭게 KAIST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KAIST에 대한 기대를 듬뿍 가지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KAIST라는 곳에 대한 인식은 일반 다른 대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단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가 주어지는 소위 공부벌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막상 들어와서 몇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느낀 학교의 모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다른 대학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내가 가지는 다른 대학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피상적이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KAIST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 선후배가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와 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KAIST에서는 1학년 때 학과가 없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경우를 빼고는 1학년 겨울에 다음 봄학기 수강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정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 학기 수강신청기간이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경영학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 과나 문과냐의 진로에서 고민하던 나에게서는 거의 완벽한 해답이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로는 KAIST 진학과 산업경영학과의 선택으로 굳어졌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 나의 생활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과와 동아리를 오가면서 나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동아리는 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었고, 과는 과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배들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자연스럽게 생활의 중심에 가져다 놓게 되었다.

산업경영학과의 독특한 면은 학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과에도 학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와 규모로 볼 때는 경영학과의 단연 으뜸이었다. 현재는 세 개의 학회가 존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회원들이 서로를 독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학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보다는 좋

은 선배들이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후배들을 대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같이 해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나는 무척이나 좋았다. 함께 공부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내가 후배에게 해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질 뿐이다.

전공을 정한 초기에는 정말로 사람이 좋아서 과에 정이 많이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많은 의미를 두게 되었다. 어릴 때는 사실 공부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전공과목을 배워가면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교실에서 그저 이론으로만 여겨지던 것들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테크노경영대학원에 합격한 지금, 4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매듭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대학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고 3 겨울 방학에 가졌던 그런 기대감과 다른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한 기대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을 나의 준비가 아닐까 한다. **F**

AIM 7기 입학식 및 대전 워크샵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은 지난 9월 3일 서울 홍릉캠퍼스 1호 관 국제회의실에서 7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종연 조흥증권회장, 송달호 국민은행 부회장, 권오륜 LG-CALTEX가스 대표이사, 김희근 벽산건설 부회장, 조남원 삼부토건 사장 등 40명의 7기 수강생들은 입학식날에도 예의없이 진행된 3강좌의 수업을 들으며 “역시 KAIST구나” 하는 조금은 긴장하는 표정들이었다. 같은 주말(9/6-7) 진행된 1박2일의 대전 워크샵에서는 KAIST 소개, 반도체 설계환경견학, 팀별 비즈니스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KAIST에 대한 이해와 수강생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배우자정보화 특강 및 부부동반 저녁 모임 (10월 10일)

7기 수강생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정보화 특강이 10월 10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AIM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특강에서는 AIM교수진들이 준비한 정보화사회에 대한 기본 강좌에 이어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윈도우95 다루는 방법과 PC통신 유니텔내의 홈뱅킹, 홈쇼핑 메뉴들에 들어가 실제 주문까지 해 봄으로써 정보기술의 활용은 “百見이 不如一行”이라는 AIM 모토를 배우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강에 이어 윤덕용 KAIST원장, 안병훈 테크노경영대학원장, AIM 교수진들을 포함한 7기 전체 부부동반 저녁모임을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가졌다.

6-7기 선후배간 만남의 시간 (10월 24일)

AIM 6기 (회장: 조갑주, 총무: 김원태)에서는 10월 24일 오후 7시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7기 후배 수강생들을 초대하여 저녁을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AIM 전통 중의 하나인 본 행사에는 6기동문, 7기 수강생들 및 AIM 교수진까지 4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소개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 6회 AIM 조찬모임 (11월 27일)

AIM 총동창회 (회장: 신평재)는 제6회 AIM 조찬모임을 11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조선호텔에서 가졌다. 본 모임에서는 삼보컴퓨터의 이용태회장이 “정보화사회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1기에서 6기까지의 동문들과 7기 수강생, AIM교수진 등 6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7기 인터넷 정보사냥 (12월 5일)

12월 5일 밤 10시에 개최된 7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출제: 이재규교수)에서 장기신용은행의 황석희 상무가 역대 최단시간인 12분만에 정답을 제출하여 우승하였고 호진위더스의 조의진 대표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경우 부사장이 2, 3 등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환율에서부터 용산전자상가에서의 레이저프린터 가격까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출제 후 1시간 이내에 무려 20여명이나 정답을 보내어 기가 거듭할수록 높아만 가는 AIM수강생들의 학구열과 정보화 실력을 과시하였다.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제8기생 모집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경영자 및 정보관리 임원진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기술 인식제고에 따른 신 관리기법을 바탕으로 미래형 관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최고정보경영자과정에서 제8기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 국회의원 및 군장성 • 기타 위의 자격과 동등한 자	• 정부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 연구소의 고위직 연구원
모집인원	40명	
교육기간	'98. 3월~8월(매주 수요일 14 : 30 ~ 20 : 20)	
원서교부 및 접수	• 교부 - 1997. 12. 15 - 1998. 1. 17 • 접수 - 1997. 12. 22 - 1998. 1. 17	
문의처	• TEL: 958-3690, 3695 FAX: 958-3694 • Homepage: http://kgsm.kaist.ac.kr/aim	

최고벤처경영자과정(AVM) 개설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변화관리, 기술관리, 경영관리 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고벤처경영자과정(AVM)을 신규로 개설하여 제1기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사내벤처,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기존기업의 경영자/관리자 •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간부급 정부공무원, 사회지도층	• 벤처캐피탈 회사의 임직원
모집인원	40명 이내	
교육기간	'98. 3월~7월(격주 금요일 : 15:00 21:00, 토요일 : 09:30 12:30)	
문의처	TEL: 958-3642(노영아), 958-3607(배종태 교수)	

※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개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일정은 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